

'의지와 인내의 야구' KIA, 우승 향해 질주



변우혁·임기영 등 부상 선수 공백 위기 잘 넘겨 이범호 "선수들 좋은 컨디션 보여주는게 중요"

선수들의 '의지'와 벤치의 '인내'로 KIA 타이거즈가 우승이라는 결승선으로 향해 간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8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통해 올 시즌 100경기를 소화했다. 그리고 이날 4-3 역전승을 거둔 KIA는 3연패에서 벗어나 60승에 선착했다.

극적인 승리, 선수들의 '의지'가 있었다.

이날 KIA는 0-3으로 뒤진 상황에서 8회 2사까지 몰렸다가 최원준의 투런포로 추격이 나왔다. 그러나 동점에는 실패한 KIA는 1점 차에서 9회 마지막 공격을 맞았고 아웃카운트를 하나 남겨두고 김선빈의 타석이 돌아왔다.

김선빈은 키움 투수 김성민의 초구를 공략해 좌월 솔로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타석에선 변우혁도 초구에 반응해 좌중간 담장을 넘기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그리고 임기영을 내세운 KIA는 9회말을 실점 없이 막고 4-3 승리를 장식했다. 두 경기 연속 1점 차 패배를 당했던 KIA 입장에서 연 연패에 빠질 수 있는 순간에 만든 값진 승리였다.

이범호 감독은 선수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이범호 감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경기에서 1점 차로 쳐서 원준이 홈런치고도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확실히 중요한 상황에서 선빈이 홈런 쳐주면서, 우혁이 편하게 타석에 들어간 것 같다. 선수들이 어떻게든 이겨야 하는 강한 의지와 1등을 하고 있는 팀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위기의 순간 선수들의 의지와 자부심을 확인한 사령탑, 결승 홈런을 날렸던 변우혁의 마음도 그랬다.

변우혁은 "선빈 선배가 앞에서 홈런을 쳐줘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 홈런을 치고 들어와서 세리머니 하면서 좋은 것보다는 다음 수비 걱정을 했다. 앞선 경기에서 1점 차로 졌고, 키움도 한 방이 있으니까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시즌보다는 타율은 더 좋지만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승리에 도움이 돼서 기쁘다"며 "이날 생각한 대로 경기가 풀린 것도 좋았다. 변화구에 약하니까 억지로 직구를 잡으면서 변화구 승부를 해보려고 했다. 잡았던 변화구들이 온 좋게 불로 오기도 했다. 변화구로 2루

타도 만들었다. 앞서 변화구 승부를 보여준 것도 있고 홈런 타석에서는 직구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싸움을 하면서 결과를 내서 좋았다"고 말했다.

선수들의 의지를 확인한 이범호 감독은 '인내'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KIA는 롯데와의 퓨처스 경기를 통해 정해영과 이우성을 테스트할 예정이었다. 여객 통증으로 빠졌던 정해영은 23일 NC전에서 부상 후 첫 등판에 나섰다, 27일 삼성전에서도 실전을 소화했다.

헨스ٹر링 힘줄 손상으로 재활군이었던 이우성도 27일 삼성전에 이어 다시 한번 점검 무대를 준비했다.

이범호 감독은 "경기 후 상태를 체크하고 올라와야 무리가 없다. 안 좋은 상태에서 올라오면 시즌이 끝나버리는 것이다"며 "두 선수와 컨디션 이야기도 하면서 체크하고 있다. 안전하게 완벽한 상태에서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도 팀이 1위를 지키면서 전력을 다져가고 있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다.

이범호 감독은 "선수들이 잘 풀어나가고 있다. 우혁이도 우성이 돌아오게 되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선수들 복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컨디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좋은 컨디션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완벽하게 전력을 꾸리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범호 감독.

'챔피언' 서야캉스 즐긴다...8월 6~11일 핫서머 페스티벌

키즈 워터파크 등 운영



KIA 타이거즈가 챔피언스필드에서 '핫서머 페스티벌'을 연다.

KIA는 8월 6-8일 KT전과 9-11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운영하고, 시원한 물대포도 쏘아 올린다.

물놀이장은 챔피언스필드 좌측 외야 샌드파크에 마련되며 미니 수영장(가로12m, 세로 6m)과 물 미끄럼틀(높이 4m, 길이 8m)이 설치된다.

물놀이장은 키 130cm 미만의 어린이(유치원생~초등학생)를 대상으로 경기장 입장 시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혼잡을 막기 위해 '30명-25분-1회' 방식으로 순환 운영되고, 물놀이장 주변에는 탈의실과 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진형요원이 배치된다.

삼성과의 주말 3연전에서는 3루측 내야 응원석에 8대의 워터캐논이 설치된다.

KIA는 안타와 득점이 나올 때마다 15m 높이의 시원한 물대포를 쏘아 올릴 예정이다.

'핫서머 페스티벌' 기간 특별한 시구자들이 챔피언스필드를 찾는다.

행사 첫날인 6일에는 프로미스나인의 하영과 지현이 각각 시구와 시타를 담당한다. 8일에는 타이거즈 팬인 배우 강예원이 시구자로 나선다.

9일에는 걸그룹 유니스가 시구와 시타를 한다. '쇼 미 더 머니 10' 우승자이자 광주 출신인 래퍼 조광일은 10일, 오디션 프로그램 '쇼퀸'을 통해 유명세를 얻은 '리틀제니' 정초하는 11일 시구자로 나선다. 이들은 특별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페스티벌을 맞아 선수단은 특별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른다. KIA는 행사 기간 특별 디자인된 지류 티켓도 발권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당구' 김행직·박정현 태백산배 남녀 동반 우승

전남 선수들이 전국3쿠션 당구대회에서 남녀 정상에 올랐다.

김행직(진도군청)과 박정현(전남당구연맹)은 지난 24-28일 강원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2024 태백산배 전국3쿠션 당구대회'에서 남자부와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박정현은 이번 우승으로 대회 3연패를 이뤘다.

11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전문선수들의 복식과 남녀 개인전, 생활체육선수들의 복식과 개인, 단체전으로 치러졌다.

김행직은 차명중(인천체육회)을 50-31(28이닝)로 꺾은 뒤 4강전에서 조명우(서울시청, 실크로드씨엔티)를 50-40(22이닝)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진 결승에서 김행직은 서창훈(시흥체육회)을 상대로 50-29(29이닝) 승을 거뒀다.

또 그는 최호일(전남당구연맹)과 출전한 남자



일반부 복식경기에서도 준우승에 올랐다. '환상의 복식조'라고 불리는 김행직-최호일 조는 지난 3월 양구에서 치러진 '제12회 국토정중앙배 전국당구대회'에서는 금메달을 합작했다.

8강에서 이호린(영파여고)을 25-20(35이닝)

로 이긴 박정현은 4강에서 최비니(승실대, 김포체육회)를 25-22(32이닝)로 누르고, 결승전에서 25-17(27이닝)로 이다연(대전당구연맹)에 승리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국내랭킹 3위'인 이들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각각 올해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행직은 제12회 국토정중앙배 전국당구대회 복식 이후 올해 두 번째 우승이다.

2024 남원 전국당구선수권대회에 이어 전국대회 2연속 우승을 차지한 박정현은 랭킹이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또 이번 대회를 통해 9월에 펼쳐질 세계여자 3쿠션 선수권 티켓을 따냈다.

조호석 도당구연맹 회장은 "전남 선수들이 전국대회 남녀 정상을 빛내 기쁘다. 어려운 훈련 여건에도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셨다"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박현경·이예원 '시즌 4승' 놓고 제주 대결

내일부터 삼다수 마스터스 유혜란·박성현·윤이나 등 출전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양강 구도를 이루는 박현경과 이예원이 시즌 4승을 놓고 제주에 대결한다.

박현경과 이예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나올 동안 제주도 블랙스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KL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10억원)에 나란히 출전한다.

이 대회는 2주 동안 휴식기를 보낸 KLPGA투어 하반기 첫 대회다.

박현경과 이예원은 상반기 마지막 대회 하이원 리조트 오픈에서 출전하지 않았기에 둘의 대결은 지난 7월 끝난 롯데오픈 이후 3주 만이다.

둘은 상반기에 나란히 3승씩 따내며 KLPGA투어 최고 선수 자리를 놓고 팽팽한 경쟁을 벌였다.

상금 랭킹과 대상 포인트에서는 박현경이 이예원을 2위로 밀어내고 1위를 달리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박현경은 이예원의 추격을 더 멀찌감치 뿌리치고 독주 체제를 갖추려면 이번 대회 우승이 요긴하다.

이예원은 박현경을 따라잡거나 추월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박현경과 이예원은 장타 대신 정교한 샷과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클러치 퍼팅을 앞세워 코스를 공략하는 님은 꼴이다.

특히 둘은 제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좋은 추억이 많다.

박현경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주 지역 골프 코스에서 치러진 5차례 대회에서 4번이나 톱10에

들었다. 특히 작년 10월 제주 핀코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SK네트웍스-서울경제 클래식에서는 9번까지 이어졌던 준우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우승했다.

박현경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제주도 골프장에서 유독 뛰어난 성적을 올려 늘 제주도에서는 자신감이 넘친다.

이예원은 제주 롯데스카이힐 컨트리클럽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냈고 두 번째 우승도 제주 테디 밸리 골프클럽에서 일주일 만큼 제주도도 각별하다.

이예원도 국가대표를 오랫동안 지내면서 국가대표 단골 훈련지인 제주도 골프 코스 공략에는 이골이 났다.

2주 동안 달콤한 휴식으로 기운을 차린 강호들의 반격도 매서울 전망이다.

지난 5월 맹장 수술로 한 달 가까이 투어를 빠진 후유증을 거의 회복한 시즌 2승의 박지영과 올해도 어김없이 우승을 신고한 박민지도 하반기 첫 우승을 노린다.

윤이나, 황유민, 방신실 등 장타 3인방의 경쟁도 이어진다. 특히 우승 한번 없이도 상금랭킹 5위에 오른 만큼 대회 때마다 우승 경쟁을 벌이는 윤이나는 시즌 첫 우승이 간절하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최근 2개 대회에서 아깝게 우승을 놓친 유혜란의 등장이 변수다.

유혜란은 2019년과 2020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별명이 제주도 오라 컨트리클럽에서 딴 '오라 공주'였을 만큼 제주 지역 코스에서 늘 좋은 성적을 냈던 터라 올해 11회째를 맞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사상 처음으로 대회 3승도 사정권이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금)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